



호스피스 는 생명사랑입니다

김수지(본회 회장 · 이대간호과학대 교수)

사랑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태어나고 성장이 있기 마련이다. 호스피스는 삶의 행복을 발견하고 보존하며 유지하는 운동이다. 이렇듯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고 삶의 행복을 발견하고 보존해가는 운동으로서 호스피스는 진정한 의미의 돌봄 행위가 그 핵심이다. 여기서 ‘돌봄’이라는 개념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그 속성, 그리고 구체적인 돌봄 행위를 간략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

돌봄의 구체적인 행위

- ① ‘알아봐 줌Noticing’이다. 알아봐 주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존재를 인식해주는 행위를 일컫는다. 대개 호스피스 환자는 오랜 투병으로 인해 심신이 지쳐있으며 자신이 혹 잊혀진 존재가 아닌지 때로는 슬프고 불안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호스피스 대상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분을 인식하며 인정해줄 때 환자는 자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게 되고 기분이 좋아지며 자존감이 올라간다.
- ② ‘동참함Participating’이다. 동참하는 것은 호스피스 대상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 즉 일상생활에서 함께 어떤 일을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심신의 기능이 쇠약하여 혼자서는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마저도 충족시킬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호스피스 대상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적인 작은 몸짓이나 활동에 동참해 줄 때 더 이상 소외감을 느끼거나 외롭지가 않고 힘을 얻게 되며 함께 하는 삶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된다.
- ③ ‘나눔/공유함Sharing’이다. 공유한다는 것은 느낌이나 생각, 경험, 지식, 정보 등 소중한 것을 나누어 주는 선한 행위를 뜻한다. 신체적인 허약상태로 인해 닫혀진 공간에서 제한된 삶을 영위해가는 호스피스 환자는 심리적, 사회적으로도 단절되기 쉽다. 이들에게 어떤 것을 공유/나눌 때 저들의 두려움, 불안, 고통은 감소하며 동시에 삶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맛보는 소중한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 ④ ‘적극적으로 경청함Active Listening’이다. 이는 온 마음과 몸으로 정성을 다해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는 행위를 일컫는다. 봉사자가 적극적으로 경청해 줄 때 호스피스 대상자는 마음을 열고 자신을 진솔하게 표현하게 된다.
- ⑤ ‘칭찬해 줌Complimenting’이다. 호스피스 대상자의 좋은 점이나 잘 한 점을 인정해주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 호스피스 대상자가 겪는 통증을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러한 통증을 잘 견디는 것, 또는 건강한 사람이 물을 마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기환자가 힘들여 한 모금을 삼키는 것은 칭찬을 받을 만 한 일이다. 사람은 칭찬을 받을 때 자기 스스로 대견하게 느끼고 신이 나며

더 잘하고 싶은 동기화가 된다.

- ⑥ ‘동행해 줌Accompanying’이다. 동행하는 것이란 같은 내용 및 방향의 삶을 함께 살아감을 의미하며, 이렇게 할 때 호스피스 대상자는 더 이상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고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와 함께 있음에 마음이 든든하고 편안한 느낌을 갖게 된다.
- ⑦ ‘안위해 줌Comforting’이다. 안위란 상대방의 편이 되어 상대방이 느끼는 슬픔이나 아픔을 이해해 주고 공감함으로써 편안하게 위로해 주는 행위이다. 안위해 줄 때 호스피스 대상자는 무조건 자기편이 되어주는 것이 고맙고 또한 든든하게 느껴지며 두려움이 없어진다.
- ⑧ ‘희망을 불어넣어 줌Hoping’이다. 이것은 생각, 말 등 우리의 모든 의식을 궁극적으로 절대자 하나님에게 맞추도록 도와주는 행위로, 호스피스 대상자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보도록 하며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
- ⑨ ‘용서받고 또한 용서해줌Forgiving’이다.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한 것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말하며 변명하지 않고 진지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관용을 요청하는 행위이다. 이 때 용서해 주는 상대방이 고마우며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져 앞으로의 삶에 대한 변화를 다짐하게 된다.
- ⑩ ‘수용함Accepting’이다. 수용이란 비판하지 않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드리는 행위이다. 수용할 때 호스피스 대상자는 긴장감이나 불편감, 죄책감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하게 느낀다.

돌봄 행위들은 사랑을 기반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호스피스 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준비를 통해 평온한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의미 있는 사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III. 맺는 말

우리는 호스피스를 통해 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절망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정과 교회, 학교, 직장, 그리고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고 돌보며 삶의 의미와 생명존중의 가치관을 실천해 나가는 진정한 보살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소원한다.

또한 호스피스의 생명사랑운동으로 오늘날 이 땅에서 해체되어 가는 가정의 공동화(空洞化), 생명경시 풍조, 노인과 병약자 홀대, 임종자에 대한 무관심과 유기 등 각양의 뒤틀리고 잘못된 가치관에 대한 새로운 역풍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극한 상황에 처한 절망하는 이들, 그리고 아무것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들의 삶과 죽음의 현장에 인간존중과 생명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호스피스 봉사자들 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대로 창세로부터 예비 된 나라를 상속 받을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감사합니다.